

**참고자료:**

- [1] "Analysts still see Dram recovery after market collapses this week," Silicon Strategies, 2002. 5. 10
- [2] Dataquest, "Semiconductor DQ Monday Report:Issue 19," 2002. 5. 13
- [3] "Falling ride begins," DRAMX, 2002. 5. 7
- [4] "Memory Chip Prices Fall After Micron's Failed Hynix Deal," TheStreet.com, 2002. 5. 10
- [5] "[반도체] 올 하반기 회복전망 여전히 유효... 매출 전년대비 5% 증가 예상," Wiseinfontet, 2002. 5. 8
- [6] "[해외리포트] 2002년 반도체 시장 성장률 0%~5%로 상향수정," Wiseinfontet, 2002. 5. 8

---

**음악공유프로그램에 대한 네덜란드법원의 판결**

---

정보사회연구실 주임연구원 오태원  
(T. 570-4111, jerry@kisdi.re.kr)

**1. 개 요**

지난 3월, 네덜란드의 항소법원은 KaZaA BV사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 1월에 있었던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엎은 것이며, 공유프로그램 업체에 대하여 저작권의 책임을 면해준 최초의 판결이다. KaZaA는 인터넷상에서 문서, 음악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냅스터와는 달리 중앙 서버를 통한 공유가 아니라 사용자들의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배포는 저작권의 문제가 없는 음악 등의 공유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어 지방법원(1심)에서는 그 프로그램의 배포를 중지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2. 지방법원(1심)과 항소법원의 판결**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KaZaA 프로그램이 저작권 침해를 발생시킨다고 하여 지난 1월 그 프로그램의 배포를 중지시켰다. KaZaA BV사는 네덜란드 법원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회사를 문닫게 할 관할권이 없다는 이의를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그 프로그램이 네덜란드에서 보호받

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법원에서는 KaZaA BV사가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불법적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물론 이 판결을 상위법원에서 다시 다루어질 수 있지만, 공유프로그램 제작사의 책임을 면해준 것은 매우 놀랄만한 최초의 판결이다.

### 3. 네덜란드 항소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문제들과 시사점

미국의 냅스터, 우리나라의 소리바다와 같이 현재 정보공유프로그램과 저작권의 문제는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냅스터 사건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태이며, 소리바다의 경우 작년 8월 검찰에서 저작권침해방조혐의로 기소한 이후 1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덜란드 항소법원에서 공유프로그램 운영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면해 준 것은 적지않은 과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저작권 침해의 피난처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저작권을 침해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을 모두 찾아서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회사의 책임을 면해준다면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온상을 형성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네덜란드 법원의 판결을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유효한 것으로 네덜란드 외의 국가에서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저작권(네덜란드 외의 국가에서 보호받고 있는) 침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국제조약에도 공유프로그램 운영회사 등의 저작권 침해방조자에 대한 통일된 규율이 없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힌다.

둘째, 냅스터와 소리바다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된 다른 나라의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KaZaA에 대한 판결은 네덜란드의 법률에 의하여 네덜란드 법원에서 이루어진 판결이므로 다른 나라의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판결에 있어서 네덜란드 항소법원의 판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 그 중에서도 P2P 기술이 저작권의 범리에 던진 문제는 최소비용의 원활한 정보공유라는 정보사회의 이념과 기존 권리의 보호라는 이념의 심각한 충돌을 보여주고 있다. 막대한 수의 실제적인 침해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활용도가 높은 정보공유 영역을 사장시킬 수 없다는 점은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상황에서 네덜란드 상위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1] “Dutch court orders KaZaA to shut down”, <http://www.canoe.ca/CNEWSTechNews0201/31-kazaa-ap.html>.
- [2] “Dutch court clears Web music swapping”, <http://zdnet.com.com/2102-1105-870551/html>.